황성규 제2차관, "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 철저" 강조

- 20일 삼성~동탄 광역급행철도 수서정거장 찾아 안전·방역에 총력 당부 -

□ **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**은 1월 20일 **삼성~동탄 광역급행철도 수서정거장** 건설현장을 찾아 **안전관리** 및 **방역대책**을 **점검**하고 **현장 관계자**들을 **격려**했다.

□ 이날 황 차관은 **수서정거장 지하 건설현장**에서 삼성~동탄 광역급행철도 **건설현황**, **안전관리 현황** 및 **방역대책**을 보고받은 뒤,

○ "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등 대형사고로 **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**"이라면서,

○ "모두가 **안전관리의 주체**라는 **책임감**과 **경각심**을 높여 **작은 것 하나도 꼼꼼히 살펴보고** 매일 **반복되는 작업**과 **안전교육 과정**에서 **혹시 무뎌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**"을 주문했다.

○ 또한,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-19 상황이 엄중한 만큼, "철도건설 현장에서도 **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** 등 **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**"을 당부했다.

□ 아울러, 황 차관은 "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('22.1.27)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**건설현장 안전**에 대한 **국민 관심과 눈높이**가 높아진 만큼 **경미한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각별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줄 것**을 당부"한다고 덧붙였다.

2022. 1. 20.

국토교통부 대변인